

주가	환율	금리
-10.01	+0.06	-0.03
1,324.95 (코스피지수)	955.70원 (원/달러)	4.74%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4.23	(+0.14)
다우(22일)	11,340	(-0.05)
나스닥(22일)	2,150	(+0.11)
닛케이	16,181	(+1.33)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37엔	(-0.23)
유로 달러 환율	1.2792달러	(-0.61)
3년만기 회사채	5.07%	(-0.02)
클레리	4.47%	(보합)

“망한회사 살리려면 조폭두목처럼 행동하라

‘조폭경영론’으로 LG카드 부활시킨 박해춘 사장



“망한 회사의 CEO(최고 경영자)는 조폭 두목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신한금융지주에 인수합병을 앞둔 LG카드 박해춘(58) 사장은 스스로를 ‘조폭 두목’으로 부른다.

박 사장은 강인한 카리스마와 확고한 추진력으로 6조원 적자의 부실 덩어리인 LG카드를 우량회사로 개조해낸 일등공신이다. 채권단의 지원도 중요했지만, ‘기업재생전문가’로 불리는 박 사장의 리더십이 LG카드 부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의 ‘조폭 경영론’의 핵심은 조직을 항상 긴장시키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다. 취임직후 노조 간부와의 담판을 통해 ‘무명의 2년’과 ‘조기 출근’이라는 성과를 거둔 일화는 유명하다.

박 사장은 지난해 1조4천억원의 흑자가 나와 휴지조각이 된 직원들의 우리사주 대출금(1인당 평균 5천만원)을 말끔히 해결해주는 가슴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본인의 연봉은 채권단에 의해 동결당했음은 물론이다.

한편 박 사장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비자카드 이사회에 참석,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조폭 경영론’을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국내기업 평균정년 56.8세

5년간 변동없어...광업·운수업이 비교적 높아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고 광업과 운수업의 정년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2~3월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1천852개소의 정년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기준 국내 기업의 평균 정년은 56.8세로 전년(56.8세)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 평균정년은 2001년 56.7세, 2002년 56.6세, 2003년 56.7세, 2004년 56.8세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전체의 95.3%에 달하는 1천765개 사업장이 정년제를 도입한 상태였으며 정년제 도입 기업의 71%(1천314개)는 직급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는 단일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직종별 정년제와 직급별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11.8%(219개), 10.5%(194개)였다.

업종별로는 광업(58.4세)과 운수업(58.0세)의 평균 정년이 비교적 높았고 도·소매업(56.2세)과 제조업(56.5세), 건설업(56.5세)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합뉴스

‘장하성 펀드’ 태광그룹 지배구조개선 나서

일명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 :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가 대한화섬 지분 5%를 확보해 이 회사가 소속된 태광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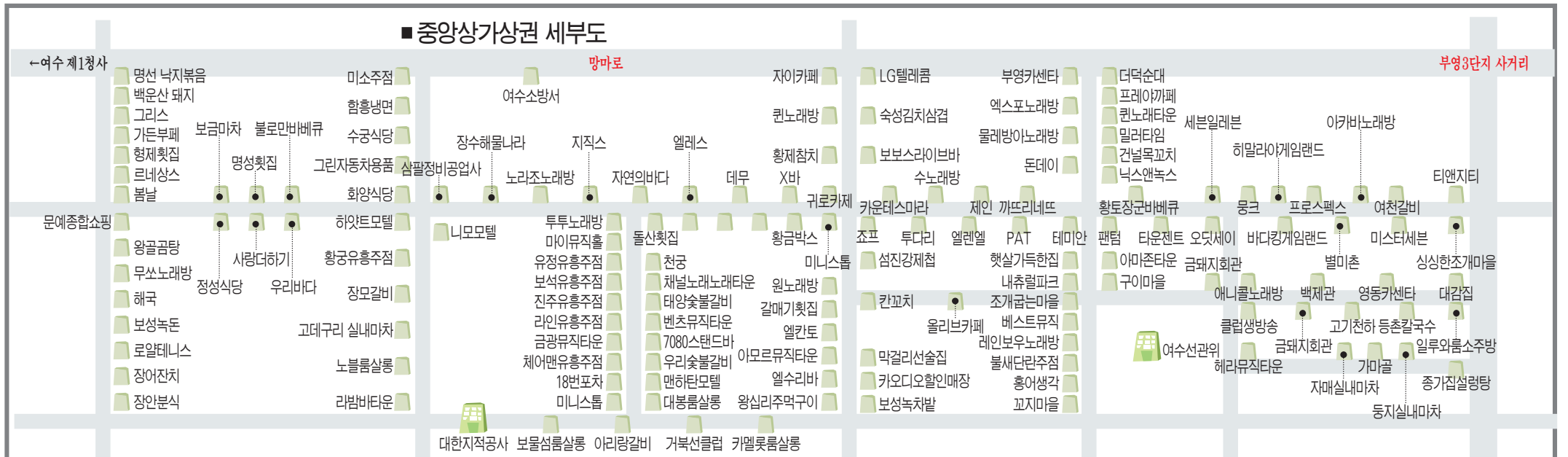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라자드애셋 매니지먼트 엘엘씨(특별관계인 2인 포함)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대한화섬 주식 6만 8천406주(5.15%)를 확보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라자드애셋의 특별관계인인 코리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펀드(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PLC)와 LFNY Funding Ltd LLC는 지난 4월부터 대한화섬 주식을 취득해, 22일 현재 각각 6만7천6주(5.05%), 1천400주(0.10%)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보유 목적에 경영 참여라고 명시하고 “소액주주 권리의 개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회사와 그 계열사들 간 거래 투명성 개선, 배당금 증액, 주주이익을 저해하는 유류자산의 매각 등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남상권 분석 4



産團 경기따라 중앙상가 ‘웃고 울고’

관광서 밀집...대형 음식점·유흥업소 200여곳 연일 불야성
홍국상가 ‘백화점식 쇼핑’ 가능...2~3년새 ‘브랜드거리’로

가 뚜렷하다. 부영아파트상가는 각종 스포츠·여성·신사복 전문점이 밀집하면서 ‘의류 거리’를 형성했다. 인근 아파트주민과 여수산단 사택 입주자들이 주된 고객층으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유동인구가 많다.

유동인구 풍부 3麗통합후 급부상

◇중양상가상권= 구 여천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다. ‘3麗 통합’ 이후 제1청사, 소방서, 보건소 등 주요 관광서를 중심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탐사동,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 200여곳이 연일 ‘불야성’을 이룰 만큼 야간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다.

지난 2004년 상매매특별법 시행과 여수산단 건축경쟁 등으로 침체기를 보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띠고 있다. 상권내 대형 음식점과 모텔 등도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상가 임대

대가 보증금 5천만~5천500만원, 월세 80~130만원(20평형 기준)에 달하지만 공실률은 매우 낮다.

특히 최근 4~5년새 여성동과 문수동 등 여수권 전역에서의 인구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상권의 특성상 주·야간의 유동인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주들이 차별화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형 게임방 입점으로 인한 10대 인구 증가세도 뚜렷하다.

한편 인근 부영1단지 상권도 구 여천권의 중심 상권으로 발달하고 있다. 부영아파트 4거리를 중심으로 부영 1, 2, 5차 등에만 2천200세대가 입주해 있다. 또 2007년에는 신동아아파트 1천8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대상가 주변으로 의류·식품류 가게, 재래시장 등이 성업중이다.

◇홍국상권=부영3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핵심 상권이 형성돼 있다. 부영아파트 4거리를 끼고 있

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한 상권에서 각종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화점식 쇼핑’이 가능한 곳이다.

특히 최근 2~3년새 스포츠·여성·신사복 매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른바 ‘메이커 골목’을 형성했다. 속내복 매장의 경우 구 여수권인 여서동에서의 인구유입세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가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선(20평형 기준)에 형성돼 있다.

스포츠·여성·신사복 매장 성업중

반면 주변의 홍국상가상권과 ‘갤럭시 골목’ 등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국상가상권은 소방서 주변의 중앙상가상권이 활성화된 이후 식당·노래방 등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임대가가 보증금 2천500만원, 월세 50만원(20평형 기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상가 공실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홍국상가상권 배후의 ‘갤럭시 골목’도 상가 임대나 매대가 자취를 감추면서 ‘상권 위축’을 실감케 하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다음 상권분석은 순천 중앙동 상권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기준 강화

조합비리 근절 서면결의서 제출 무효...25일부터 시행

2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매우 엄격해진다.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일정 수 이상의 건설업체가 경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지자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예비평가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돼 안전진단을 앞둔 단계들의 사업추진이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과 ‘재건축 관정을 위한 안전

진단 기준 전면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내를 돌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해 서면결의서는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의사 정족수에서는 배제돼 총회에 참여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서면결의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제정안은 또 건설업체의 개발 홍보행위, 사은품 및 금품 등 제공행위는 금지

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두차례이상 반드시 열도록 했다.

소수 업체와 추진위·조합 일원간의 사전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업체의 하한을 정해 일정 수 이상의 입찰참여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경쟁입찰로 인정키로 했다.

이 기준은 25일 이후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는년부터, 재건축은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인 재건축 성능 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0.45에서 0.50로 높이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의 비중을 0.15에서 0.10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방건설사 공동도급 84억원으로 확대

권 경제부총리 간담회 지방건설 활성화 대책

지방 건설경기 회생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건설사와의 공동 도급기준이 84억원으로 확대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건설경기가 부동산 거래에 인하여, 정부 입찰물량 확대, 추경예산 집행 등으로 하반기부터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문제는 지방 건설경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SOC예산을 상위 30%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싸늘하게 추가예산을

집행해도 지방건설업체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일례로 지역의 무 공동도급제를 들어 “지방건설사를 반드시 참여토록 한 공동도급 기준이 현재 50억원 미만이지만 이를 80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면 1조4천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무 공동도급제는 지방 중소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국가 공사에 반드시 지방 건설사를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연간 물량규모는 6천억원이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하도급법 위반 8개사 적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김영철)가 자동차·전자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직권실태 조사결과 D 사 등 10개 대상업체 중 8개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금액은 3억4천420만원이었으며, 이중 여음할인료 위반금액이 3억1천285만2천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광주사무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특히 부당감액 혐의가 있는 1개사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미래지향 초일류기업 재도약 다짐

남화토건 창립 60돌

남화토건(주)은 지난 22일 광주시 신안파크호텔 대연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갖고 ‘초일류기업’ 도약을 다짐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남화토건 창립자인 최상욱 회장을 비롯 300여명의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의 저서 ‘남화가족이 잘사는 길’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최상욱 회장은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창립 60주년을 맞게된 것은 임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힘을 쏟은 결과”라며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해온 남화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재도약하자”고 말했다.

남화토건은 지난 1946년 8월 화순에서 설립됐으며, 남화개발, 센트럴저축은행, 문연컨트리클럽 등 6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증권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교육·문화사업으로는 유당학원과 유당문화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롯데마트, 수완지구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자 선정

롯데마트는 23일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호수공원 옆에 복합쇼핑몰을 개발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사업비 2천여억원을 들여 1만여평 부지에 3만여평 규모 ‘레이크 파크’ 쇼핑몰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까지 롯데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내년 하반기에 착공

에 들어가 2008년 롯데마트와 쇼핑몰을 열고 2011년까지 기타 업무시설, 영화관 등을 오픈할 방침이다.

이밖에 롯데마트는 지난 6월 김포공항 스카이 파크 복합쇼핑몰의 사업자로 선정됐던 이어 오는 11월 광주 월드컵 경기장 내 할인점과 쇼핑몰이 포함된 9천평 규모 복합쇼핑몰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